

특별메세지 II - 우버와 4차산업 그리고 선교

1. 4차산업 시대 그리고 우버. (혁신과 변화)

1차 산업혁명 :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 2차 산업혁명 :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3차 산업 : 컴퓨터 & 인터넷 지식정보 / 4차 산업혁명 : 제2차 정보 혁명

변화되고 있는 세상속에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변화는 '혁명'이라 말할 정도의 강력한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혁신은 삶이 되었고, 그 시대가 되었다.

2 공유경제 - 우버 (기존 플랫폼의 반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우버는 우월하다는 의미를 지닌 독일어 위버에서 따온 단어)' 가 좋은 예이다. 탄생배경은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과 가렛 캠프가, 30대 청년 겨울 때 있었던 프랑스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3시간이나 잡지 못했던 불편함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다. 분명 이런 불편함은 구조적인 기존조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이 오늘날 기존 운수업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무서운 조직이 되었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한 '공유경제'가 바로 그 핵심이다.

(1) 우버의 핵심은 '필요'를 개선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필요를 느끼는 존재이다. 모든 조직의 문제점은 '필요'가 무시될 때이다. 그것이 잘못된 갑의 상태이며, 기득권의 상태가 된다.

(2) 혁신은 잘못된 구조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필요가 있는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불신의 문제를 신뢰로 회복한 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불신은 새로운 플랫폼 형성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힘이 생기면 우버 자체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하게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거대권력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에 익숙해 질 때 그들의 정책은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될 수 있다. 4차산업이나 우버의 공유 경제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교회는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시대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혁신 그리고 플랫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가서 실제적 확장의 역사가 된다. 확장의 구체적인 의미란, 유대인에게 있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흐름'을 변화시킬 소수의 제자들을 리더로 준비 시키셨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초대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회당'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되는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변화를 왜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본질(복음)을 뺀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대인만의 사교관, 세계관의 변화과정 그리고 교회의 변화 - 예루살렘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렇다면 중심에 있었던 초대교회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가 그전의 회당문화와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화를 위한 변화는 의미가 없다. 즉, 구조만 변화되었고 내용은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추상적이고 이상주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힘이 없다.

진짜 혁신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로 시작된다. 그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이 혁신가이다. 모든 '혁신'의 핵심은 '필요'에 의한 변화이다. 누가 우물을 팔 수 있겠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이다. 모든 혁신은 불편함에 대한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실제적이다.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4. 초대교회 플랫폼 -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

[사도행전 2:44-45]

44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1) 필요에 반응하는 공동체 (45절)

초대교회 플랫폼의 성격을 보라. 모든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였다. 필요에 민감했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4차산업의 핵심인 '서비스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문화로 있었다는 것이다. 서비스란 무엇인가? '필요'를 아는 것이다. 필요에 민감한 것이다.

필요에 둔감하기 시작할 때가 죽어있는 것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살아있다는 것은 '필요'를 아는 것이다. 배고픈데 배고픔을 모른다면 죽어있는 것이다. 아픈데 아픔을 모른다면 죽어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성전과 회당문화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정작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필요는 외면했다. 오히려 그들을 차별했으며 불편하게 여겼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언제나 배고픔, 고통,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리더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서비스는 '섬김'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몸'이다. 조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첫번째 증상이 필요에 둔감한 것이다. 조직성장을 위한 필요에 민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생명력은 조직성장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민감함이 아니다. 몸의 원리이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필요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필요가 아니다. 초대교회의 플랫폼은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했고, 또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성전과 비교할 때 혁신인 것이다.

(2) 소통하는 구조

4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 아무리 필요를 느껴도 이것이 전달되고, 또 그 전달을 따라 반응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 소용이 없다. 몸이 아니라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통'의 부재이다. 초대교회는 내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고, 또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소통의 몸이었다.

함께 지냈다는 것은 서로간의 '소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32-35]

32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4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초대교회의 몸을 사회주의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몸이다. 즉, 인간의 구조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과 자연스러움'이다. 강요가 아니다. 서로의 필요를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다. 상호적 흐름이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도울 수 있고, 나의 단점을 상대방의 장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능력과 소유의 힘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섬김의 문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34절)

(3) 사도들의 투명성

모든 초대교회의 흐름이 무질서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다(35절).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의 질서 아래에 움직였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했던 역할은 권력과 힘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시켜 주는 사람들이었다. 지금과 같은 조직은 리더의 형성이 권한과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권한으로 권위를 지켜가려 한다.

언제나 권한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권위가 있는 존재였고, 그들의 권위는 권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적 권위였다. 오히려 그들은 권위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권한을 풀어내는 사람들이었다.

사도들이 서로의 투명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간의 연합이다. 그들의 연합은 모임만 같이하고, 일은 따로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했다. 일을 같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연합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부인', '겸손', '섬김의 마음'이다. 내 것을 포기해야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5. 열방을 담아내려면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조이풀 교회가 고민해야 할 혁신이 많이 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본질을 담을 그릇은 언제나 변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안에있는 '불신과 의심'을 사랑의 몸이되어 회복해 나가자.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열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소통해야 한다. 지적과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보려는 눈을 가져야 한다.

(1)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랑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아니라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하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2)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함께'라는 것이다.

(3) 전략이 아닌 컬처를 일으키라.

초대교회의 플랫폼이 열방을 담아 낸 것은 전략이 아니라 컬처를 일으킨 것이다.